

멕시코 경제 동향 (2009.7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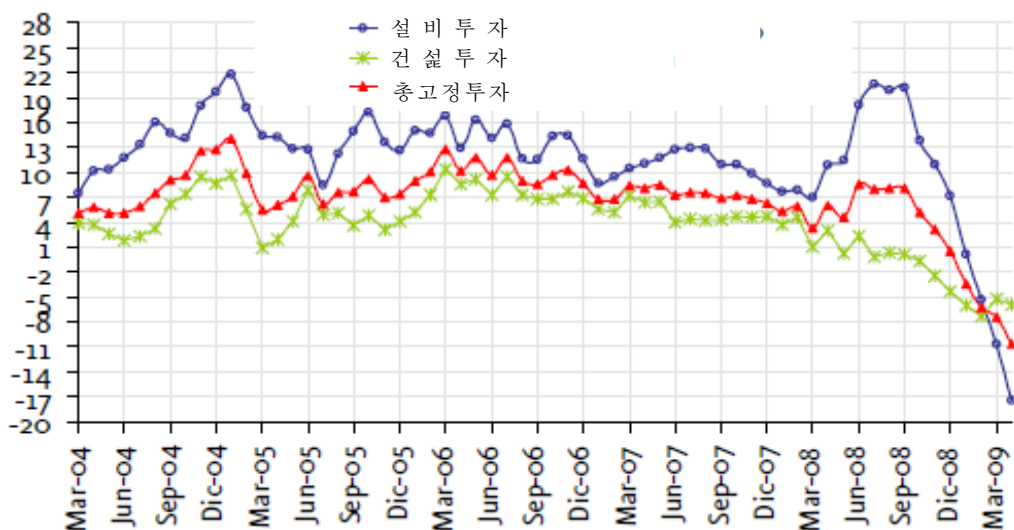
I. 주요 지표 현황

□ 총 고정투자 감소세 지속

- 금년 4월 멕시코 총 고정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7.8%가 감소했으며, 계절요인을 제거한 전월대비로는 1.99%가 감소,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투자증감률은 전년동기간대비 -10.1%를 기록
- 세부적으로는 설비투자가 30.2%(수입 -31.1%, 내수 -27.5%), 건설투자가 8.5% 각각 감소

[그림1] 3개월 평균 투자별 증감률 추이

(전년동기대비 3개월 평균 증감률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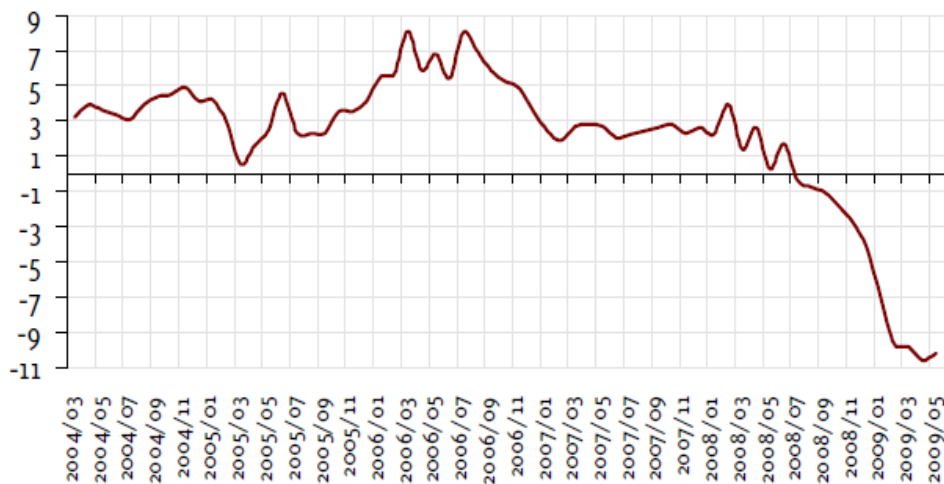
자료 : 멕시코 통계청

□ 광업을 제외한 전 업종 산업생산 감소

- 5월중 멕시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.6%가 감소했는데 이중 제조업이 -16.3%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, 이어 건설업 -9.5%, 전기가스 수도업 -2.1%를 기록
- 그러나 광업은 비석유광업의 호조로 0.3%가 증가, 한편, 계절요인을 제거한 전월대비 증감률은 -2.2%

[그림2] 멕시코 산업생산 변화 추이

(전년동기대비 3개월 평균 증감률)



자료 : 멕시코 통계청

□ 금리위원회 기준금리 4.5%로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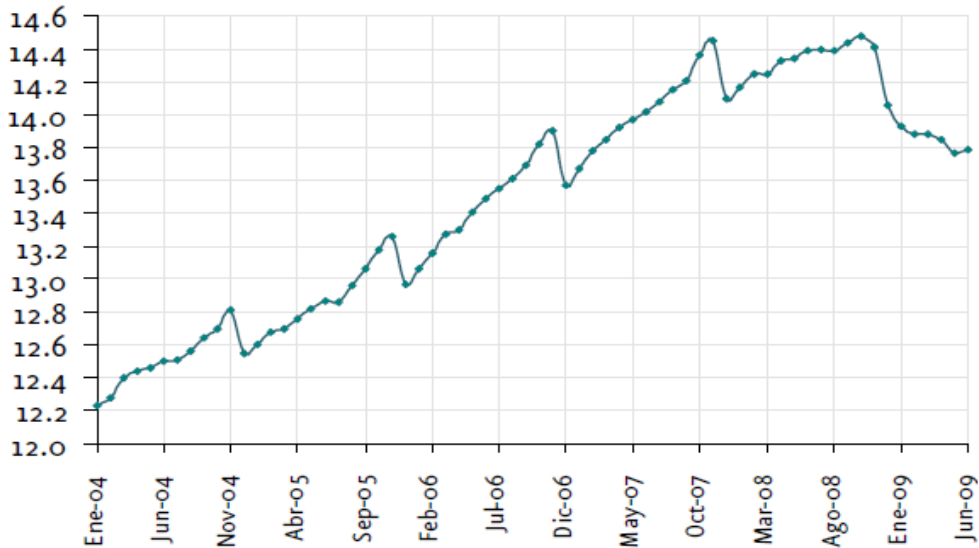
- 멕시코 중앙은행 금리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4.5%로 결정, 이에 따라 금리는 2003. 7. 31 이후(4.14%) 최저 수준을 기록
- 금리위원회는 하반기 중 경기회복이 예상되나 아직은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고, 인플레이션도 연말 기준 약 4% 수준으로 낮게 전망되면서 물가상승 압력도 낮아 금리 인하를 결정

□ 올해 상반기까지 일자리 269천 개 줄어

- 멕시코사회복지공단(IMSS)에 따르면 최근 12개월 중 전기대비 596,000개의 일자리가 감소(-4.1%)했으며, 올 상반기 중에는 269,000개의 일자리가 감소
- 그러나 6월말 현재 공단에 등록된 정규직 및 임시직 등 도시근로자수는 13,793,761명으로 전기대비 19,243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회복의 기미를 보임

[그림3] 멕시코 사회복지공단 등록 근로자수 추이

(단위 : 백만 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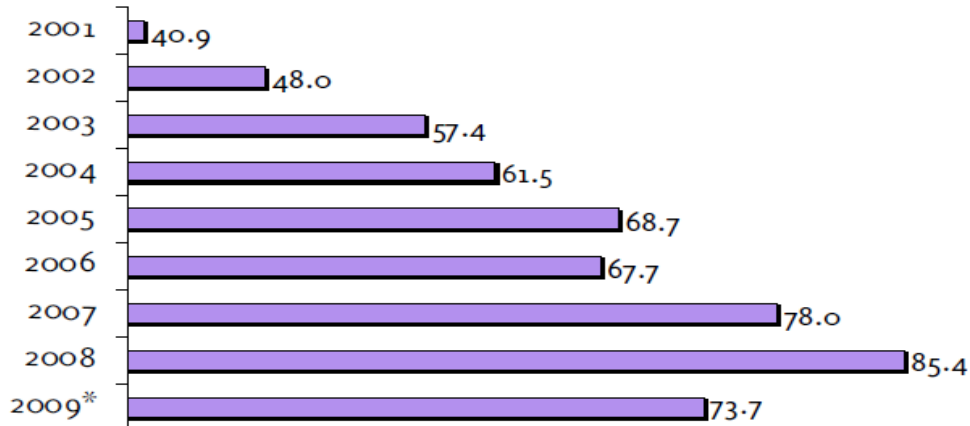
자료 : 멕시코사회복지공단(IMSS)

□ 멕시코 외환보유고 감소세 지속

- 7월 10일자 현재 멕시코 외환보유고는 전주대비 426백만 달러가 감소한 73,699백만 달러이며, 전년말대비로는 11,742백만 달러가 감소
- 이는 중앙은행의 189백만 달러 구매 및 시중은행 앞 입찰방식 500백만 달러 매각에 따른 감소요인에 기인, 한편 운영 수입 등에 의해 263백만 달러가 증가

[그림4] 연도별 외환보유고 추이

(단위 : 십억 달러)



* 2009년은 7월 10일 현재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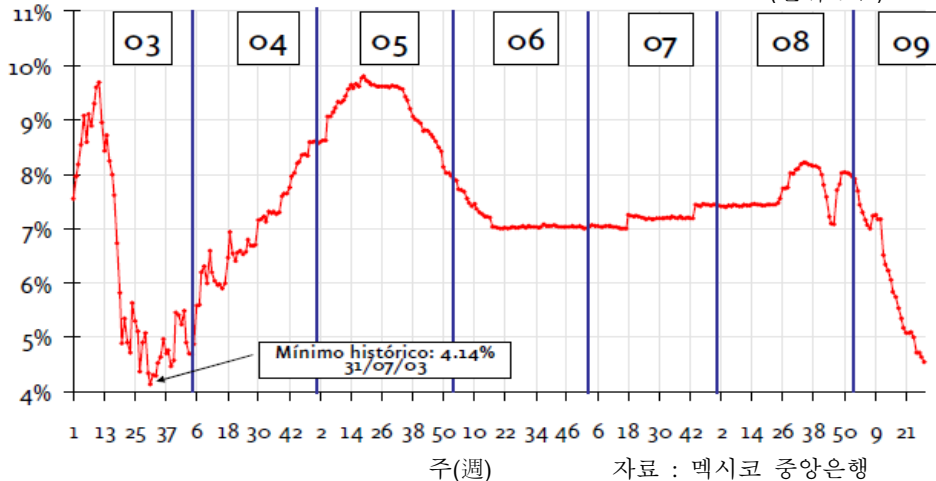
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
□ 금리 하락세 진행중

- 7월 14일자 현재 멕시코 기준금리는 28일물, 91일물 및 175일물 별로 전주대비 각각 10bp, 13bp 및 10bp 하락한 4.55%, 4.59% 및 4.70%를 기록
- 한편, 30년 만기 채권 시세는 전주대비 4bp 오른 9.08%에 거래되었으며 5년만기 채권시세는 변동이 없음

[그림5] 연도별 주별 기준금리 동향 (CETES 28일물 기준)

(단위 : %)



□ 멕시코 증시 급등

- 7월 17일 멕시코 증시는 글로벌 증시 상승과 연동하여 전주대비 8.82% 급등한 25,741.96 기록. 이에 따라 연초대비 상승률은 폐소화 기준으로 15.02%, 달러화 기준으로는 18.83%가 상승

[그림6] 멕시코 주식시장 동향

(단위 : 포인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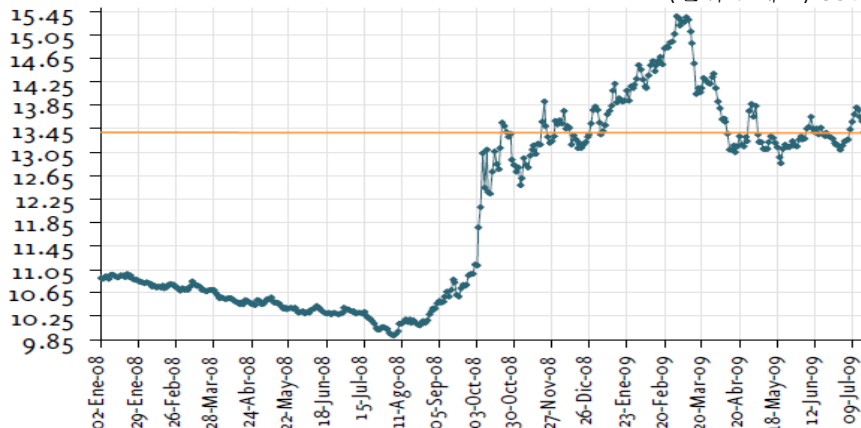
자료 : 멕시코 증권협회

□ 페소화 환율 하락 반전

- 7월 17일자 현재 페소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전주대비 31.57센타보 내려 13.3895 페소를 기록했으며, 금년 현재까지의 누적평균 환율은 연초대비 44.30센타보 상승한 달러당 13.8057페소를 기록

[그림7] 페소화 대미 달러 환율 동향(2007~2009)

(단위 : 페소/US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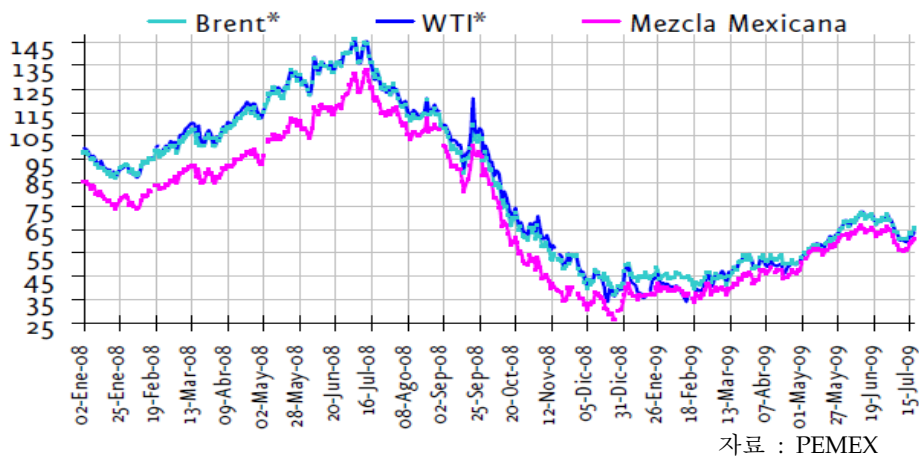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
□ 멕시코산 원유 수출가 재상승

- 7월 10일자 멕시코산 원유의 수출가격은 전주대비 8.96% 오른 배럴당 60.55달러로 지난주에 이어 상승세 지속. 동 수출가격은 연초대비로는 76.94%가 상승했고, 동 일자 현재까지의 금년 평균가는 48.53달러를 기록
- 한편, 서부텍사스중질유 및 북해산브렌트유도 각각 6.13% 및 8.03% 상승 59.89달러 및 60.52달러에 거래

[그림8] 원유수출가격동향(배럴당 가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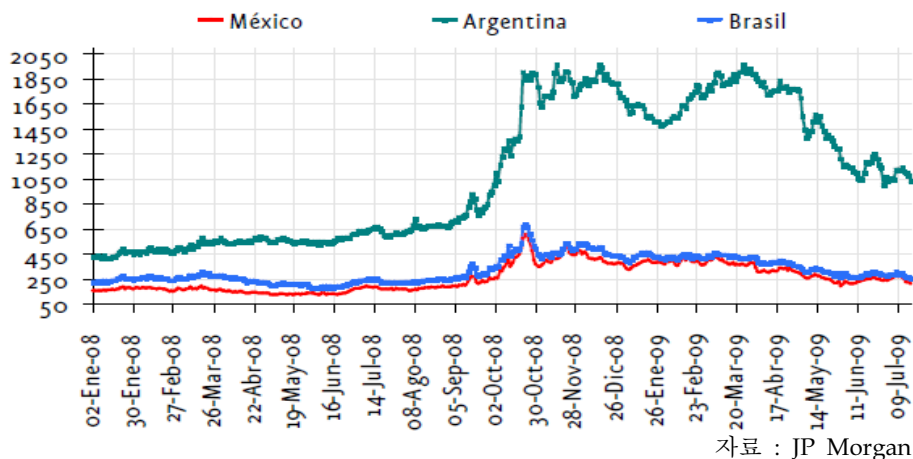


□ 멕시코 국가위험도 큰 폭 내려

- 7월 17일 멕시코에 대한 JP Morgan의 개도국 위험지수(EMBI+)는 전주대비 62bp 내려 212bp를 기록,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1,037bp 및 350bp으로 각각 86bp 및 53bp 하락

[그림9] 멕시코 국가위험도지수(EMBI+)

(단위 : basis point)



II. 기관별 경제관련 전망

□ Banco IXE, 멕시코 경제 위기 바닥 진행중

- IXE은행은 4월중 멕시코 총 고정투자가 전년동월대비 17.75% 감소했는데, 이는 당초 IXE측의 예상(11.1%)보다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. 그러나 IXE는 시장 예상(18.6%)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언급
- 또한 4월은 부활절 연휴로 인한 가동률 감소 요인을 감안하면 3월달 보다는 덜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멕시코 경기가 바닥에 근접해 있다고 설명

□ BANAMEX, 수출이 경기 부양의 시작점

- BANAMEX은행은 최근 수출 실적 증가와 멕시코 기업의 수출경쟁력이 살아나고 있어 수출에서 멕시코 경제 회생의 기미가 보인다고 언급
- 이에 대한 근거로 현재 자동차 및 전기·전자제품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1월부터 5월까지 제조업 부문 대 미국 수출이 전년대비 11%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실적도 0.5% 상승한 사실을 제시
- 아울러 환율 상승에 따른 멕시코산 제품의 시장성이 높아지면서 수출경쟁력이 살아나고 있어 수출로 인해 동국 경제 위기의 충격이 완화되고 있고 경기 회복의 언급
- 한편, 동 은행은 멕시코의 거시경제, 대외계정 인플레이션 등 경기 회복 불안 요인으로 지적

□ IMF, 멕시코 2010년 3%대 성장 예상

- IMF는 2010년 멕시코 경제성장률을 3%로 예상. Miguel Savastano 서반구국 차장은 경제 위기가 진행중인 멕시코가 글로벌 경제위기와 신종인플루엔자의 “희생양”이라고 표현

- 그는 멕시코 정부의 경제위기 대처능력, 금융 상황 등은 매우 긍정적이고 절대적으로 실망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전하며, 2010년에는 3%대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고 언급
- Savastano 차장은 멕시코가 2013년쯤이면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이 가능하지만 이 모든 것이 미국의 경제 성장에 달려있다고 언급하는 한편, 정부가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효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

< 멕시코시티 사무소 제공 >